



녹색성장지표 2017

- OECD 녹색성장지표 2017 주요 결과 및 부문별 한·중·일 비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내 용

1. 개요
2. OECD와 G20 국가 녹색성장 비교
3. 녹색성장지표 부문별 주요 부문별 결과
4. 한·중·일 녹색성장 주요지표 비교
5. 요약 및 정리

작 성

염성찬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

shiney@gtck.re.kr | 02-3393-3333

김행미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

hmkim@kistep.re.kr | 02-589-5243



1. 개요

○ OECD는 회원국과 G20 등을 포함한 46개 국가를 대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지표의 변화를 비교하여 「녹색성장지표 2017」 보고서를 발간

- 발간목적: 녹색성장 지표를 활용하여 녹색성장의 기회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및 투자, 혁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
- 발간시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2011년 처음 발간, 이후 3년 주기로 평가지표 항목 및 연구대상을 점진적으로 개선·수정하여 발표

- 평가지표: 4대 분야, 26개 투입-산출 평가지표로 구성

※ 경제사회적 맥락과 성장의 특성, 경제적 기회와 정책적 반응을 구조화

※ 2017년 지표 체계에서는 환경 조정 다요소 생산성 지표, 대기오염 노출 관련 경제적 비용 지표, 토지 피복도 변화, 기술혁신 지표 등이 추가되었고, 기존 지표 일부의 정의가 변경

○ 이번 호에서는 OECD에서 발간(‘17.6)한 「녹색성장지표 2017」의 부문별 지표를 검토하고, 부문별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결과를 비교·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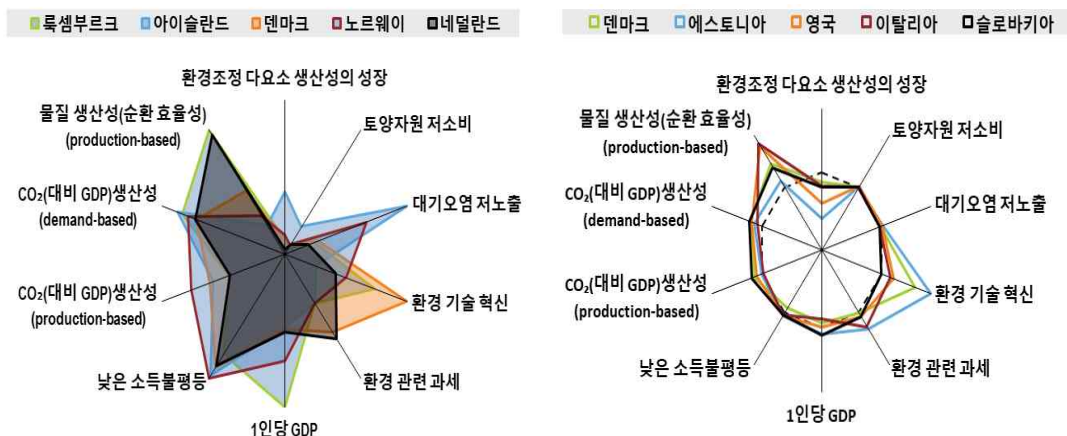
〔참고〕 OECD 녹색성장지표 체계

분야	설명	주요지표 (Main Indicator)	세부지표(예)
환경과 자원의 생산성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경제적 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	CO ₂ 생산성 지표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TRES 단위당 GDP 등
		비에너지 자원 생산성 지표	폐기물 소비량 당 GDP, 부문별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 조정 다요소 생산성 지표	환경서비스의 역할, 자원소비와 오염비용 등
자연자산 기반	자연 자산의 증감을 양적, 질적, 가치적 측면으로 평가하여 미래의 성장 또는 위험을 예측	자연자원 지표	담수, 산림, 광물자원의 사용량 추이 등
		토지 피복도 변화 지표	토지사용 현황, 변화 등
환경적 측면의 삶의질	환경적 조건과 위험이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측정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상하수도 서비스 이용인구, 환경문제와 경제적 비용 등
경제적 기회와 정책적 대응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	기술혁신과 환경적 제품과 서비스	에너지·환경 R&D 지출, 특히, 환경 서비스 부문의 고용 등

자료) OECD, 「Green Growth Indicator 2017」, 2017.6

2. OECD와 G20 국가 녹색성장 변화 비교

-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대부분의 측정지표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됨
 - 룩셈부르크는 물질적 측면에서 생산성(자원 순환의 효율성)이 높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의미하는 1인당 GDP가 가장 우수
 - 덴마크는 환경 관련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선두 주자이며, 환경 관련 과세에 대한 순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노르웨이는 수입의 분배 측면에서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의 선두 주자이고, 아이슬란드는 대기오염 저노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
- 덴마크, 에스토니아, 영국, 이탈리아, 슬로바키아**는 2000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지표향상 및 변화가 높게 나타난 국가이며, 녹색성장으로 진척 과정이 우수하였다고 평가됨
 - 영국과 이탈리아는 물질 생산성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슬로바키아와 덴마크는 탄소 생산성 부문에서 변화가 높게 나타남
 - 이탈리아와 에스토니아는 환경 관련 과세에 대한 변화율이 높았으며, 덴마크와 에스토니아는 환경관련 혁신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



[상위 점수 5개 국가: 2015, 또는 최근 년도]

[가장 향상이 많이 된 5개 국가: 2000~2015]

주) 각 축은 46개 국가에서 관찰된 결과 범위를 대표하여, 가장 높은 점수의 국가는 각 축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가장 낮은 점수는 중심에 가깝게 위치
자료) OECD, 「Green Growth Indicator 2017」, 2017.6

[그림 1] 녹색성장지표 오버뷰(Overview) 결과

○ 녹색성장지표 중에서 주요 10개 평가지표*의 OECD 평균 0.46이고, 1위는 아이슬란드(0.59)

* 주요 10개 평가지표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선별하여 측정([참고])

- 46개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0.59), 노르웨이(0.58), 룩셈부르크(0.57), 아일랜드(0.55), 네덜란드(0.55), 덴마크(0.54), 스웨덴(0.54), 스위스(0.53), 영국(0.52), 한국(0.50) 10개국이 녹색성장의 선두권
- 전반적인 평가에서 인도네시아(0.39), 터키(0.39), 그리스(0.38), 미국(0.38), 러시아(0.38), 아르헨티나(0.37), 캐나다(0.36), 멕시코(0.33), 중국(0.32), 남아프리카 공화국(0.27) 10개국은 하위권



[선도국가 10개국]



[하위국가 10개국]

[그림 1] 주요 10개 지표에 따른 선도국가와 하위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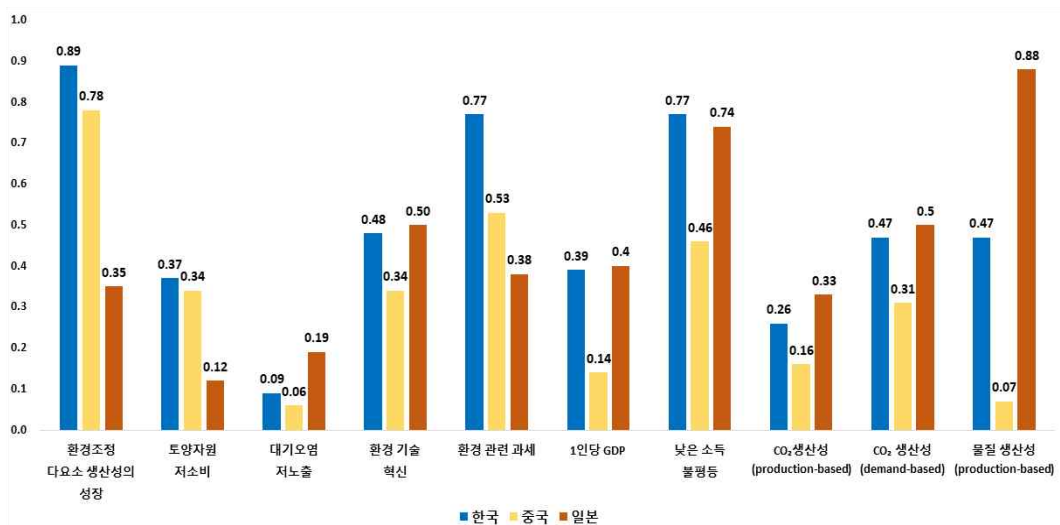
[참고] 주요 10개 지표

-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위해서 ①CO₂ 생산성(2가지), ②자원효율성, ③환경다요소생산성, ④대기오염 노출 정도 등의 5개 지표를 활용하고 경제사회환경 지표 5가지를 보조지표로 활용
- 헤드라인 지표 중 5개를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보조지표로써 국가별 빌딩건축 토지 사용 비중, 환경 관련 혁신과 세금, 소득 수준과 소득불균형 지표를 사용

구분	지표명	측정방법
주요지표	환경조정 다요소 생산성 성장	Environmentally adjusted multifactor productivity growth (Max)
보조지표	토양자원 저소비	Low land consumption (Min)
주요지표	대기오염 저노출	Low air pollution exposure (Min)
보조지표	환경기술 혁신	Environmentally related innovation (Max)
보조지표	환경 관련 과세	Environmentally related taxation (Max)
보조지표	1인당 GDP	GDP per capita (Max)
보조지표	낮은 소득불평등	Low income inequality (Min)
주요지표	생산기준 CO ₂ (대기 GDP)생산성	CO ₂ productivity(production-based) (Max)
주요지표	수요기준 CO ₂ (대기 GDP)생산성	CO ₂ productivity(demand-based) (Max)
주요지표	물질 생산성(순환 효율성)	Material productivity(production-based) (Max)
전체평균	평균	$(X_{ic}/\text{Min}X_{ic} \times 100)/10$

○ 한중일 3개국의 주요 10개 지표 평가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세

- 일본은 0.44로 22위, 중국은 0.32로 45위를 차지하여 3개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OECD 평균보다 우위
- 한국은 환경조정 다요소 생산성 지표와 토양자원 저소비, 환경 관련 과세, 낮은 소득 불평등 지표에서 중국과 일본 보다 우세
- 일본은 환경 기술 부문의 혁신 지표, 1인당 GDP, CO₂ 생산성(수요/공급 기준 모두), 물질 생산성 지표에서 우위
- 중국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열세이나, 환경 조정 다요소 생산성 지표와 토양자원의 저소비, 환경 관련 과세 부문 지표에서는 일본보다 우위



자료) OECD, 「Green Growth Indicator 2017」, 2017.6

[그림 2] 주요 10개 지표별 한·중·일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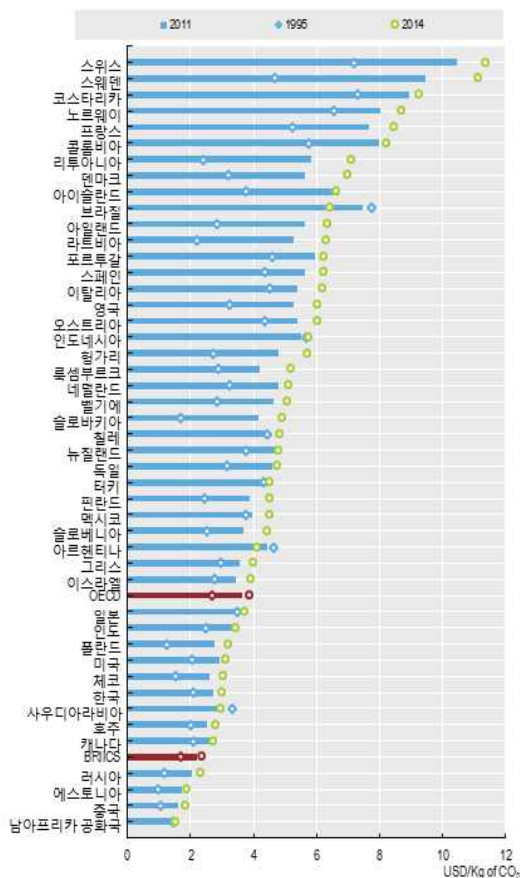
(단위: 점)

국가	환경조정 다요소 생산성의 성장	토양자원 저소비	대기오염 저노출	환경 기술 혁신	환경관 련과세	1인당 GDP	낮은 소득 불평등	CO ₂ 생산성 (생산기준)	CO ₂ 생산성 (수요기준)	물질 생산성 (생산기준)
한국	0.39	0.77	0.26	0.47	0.47	0.89	0.37	0.09	0.48	0.77
중국	0.14	0.46	0.16	0.31	0.07	0.78	0.34	0.06	0.34	0.53
일본	0.40	0.74	0.33	0.5	0.88	0.35	0.12	0.19	0.5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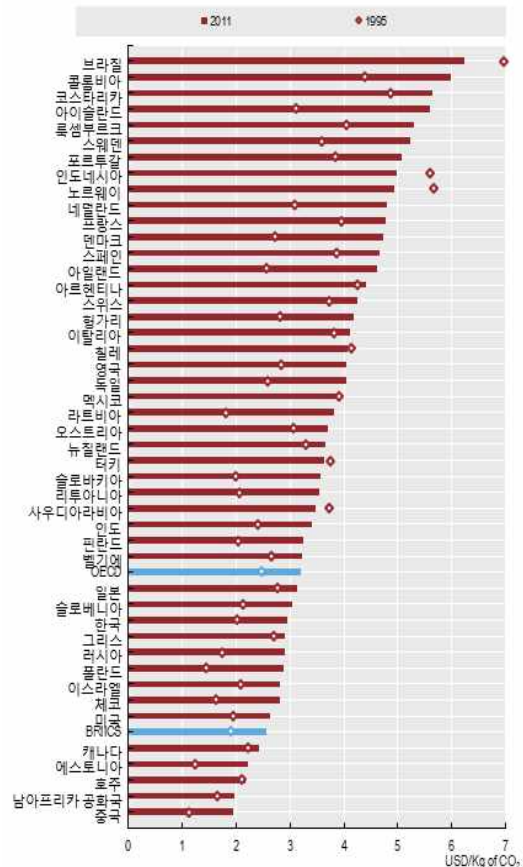
3. 녹색성장지표 주요 부문별 결과

환경과 자원의 경제적 생산성

- CO₂ 생산성은 CO₂ 발생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을 의미하며 1995년과 비교하면, 리투아니아가 295%(\$2.41 → \$7.12)로 가장 높은 CO₂ 생산성이 향상 변화율을 보임
 - 자국에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CO₂ 발생 대비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스위스, 스웨덴,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프랑스 등이며, 해외 수출용을 포함하는 CO₂ 발생 대비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로 나타남
 - 한편, 중국은 생산 기반 측면에서 CO₂ 배출량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15% 증가하였고, 수요 기반 측면에서는 157%의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도가 생산 기반 측면에서 185%, 수요 기반 측면에서 132%의 CO₂ 배출량이 증가함



[생산기반 CO₂ 생산성]



[수요기반 CO₂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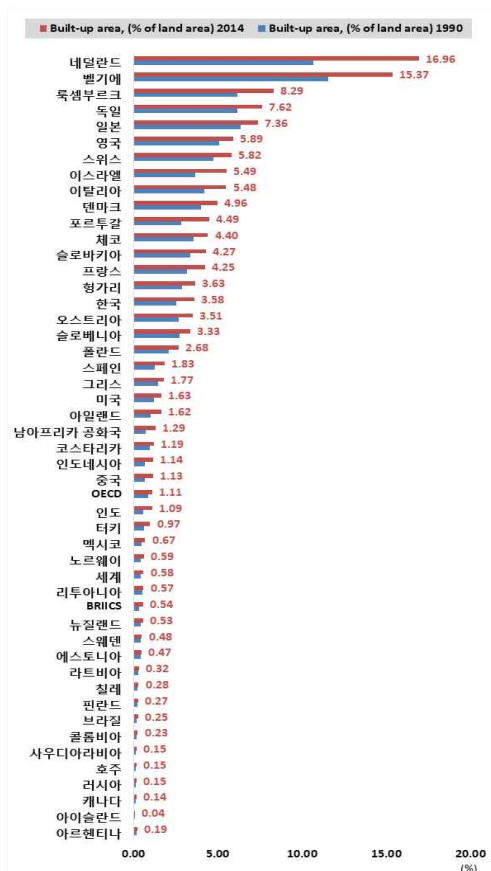
자료) OECD, 「Green Growth Indicator 2017」, 2017.6

[그림3] CO₂ 생산성 향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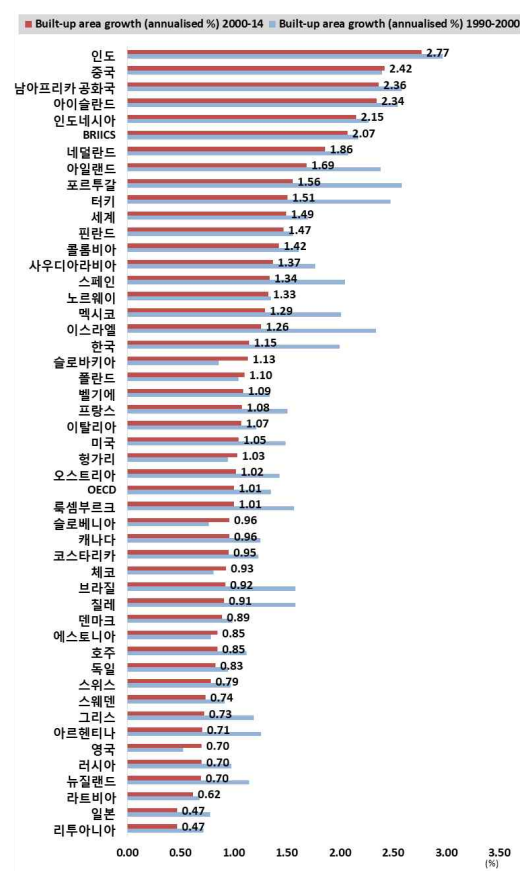


자연자산 기반

- 토지 피복도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유지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OECD 국가들은 건축용 토지를 평균 1.11%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과 비교하여 30%이상 증가한 수치
 - 경제활동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건축용 토지(built-up area)의 활용에서 OECD 국가들은 전체 토지의 평균 1.11%를 사용(1990년대 대비 30% 증가)
 - 전체 토지 대비 건축용 토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16.96%(1990년은 10.67%)이며, 그 다음은 벨기에(15.37%)와 룩셈부르크(8.29%), 독일(7.6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국가에서 건축용 토지에 대한 사용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인도와 중국의 토지 사용 연평균 증가율이 2.77%, 2.42%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임



[건축용 토지 비중, % land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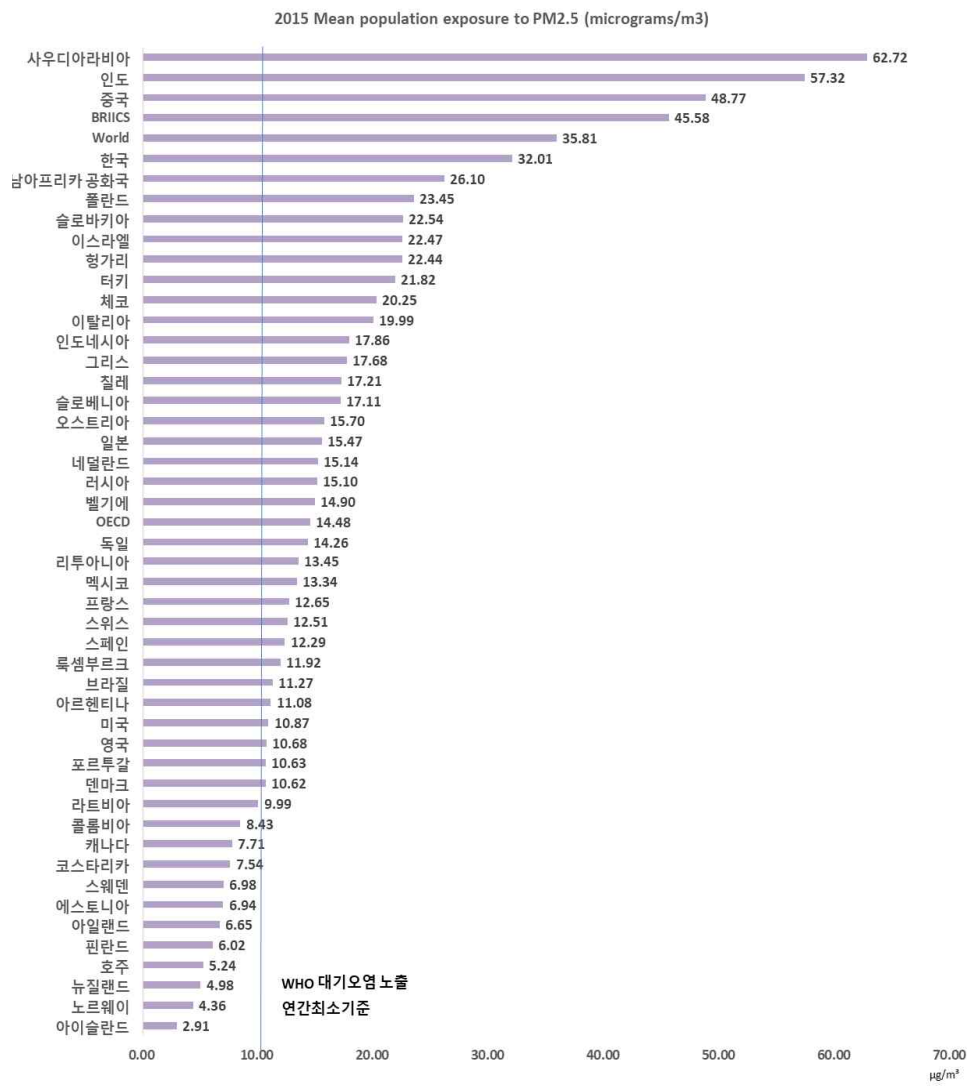
[건축용 토지 이용 증가율]

자료) OECD, 「Green Growth Indicator 2017」, 2017.6

[그림 4] 건축용 토지(built-up area)사용 비중

환경적 측면의 삶의 질

- PM2.5($\mu\text{g}/\text{m}^3$) 농도의 미세먼지(오염) 대기에 대한 평균 노출 정도는 환경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염 노출이 심각한 수준
 - 사우디아라비아는 연평균 $62.7 \mu\text{g}/\text{m}^3$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가장 심각한 수준
 - 그 다음은 인도($57.3 \mu\text{g}/\text{m}^3$), 중국($48.8 \mu\text{g}/\text{m}^3$)이며, 가장 노출이 적은 국가는 아이슬란드($2.9 \mu\text{g}/\text{m}^3$), 노르웨이($4.3 \mu\text{g}/\text{m}^3$), 뉴질랜드($5.0 \mu\text{g}/\text{m}^3$)의 순
 - WHO의 연간 권고기준인 $10 \mu\text{g}/\text{m}^3$ 미만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OECD 국가의 1/3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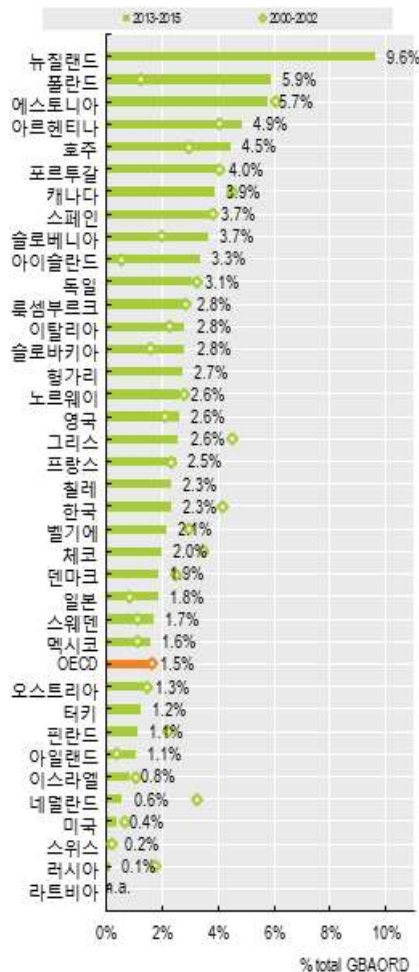
자료) OECD, 「Green Growth Indicator 2017」, 2017.6

[그림 5] 2015년 기준 대기오염 평균 노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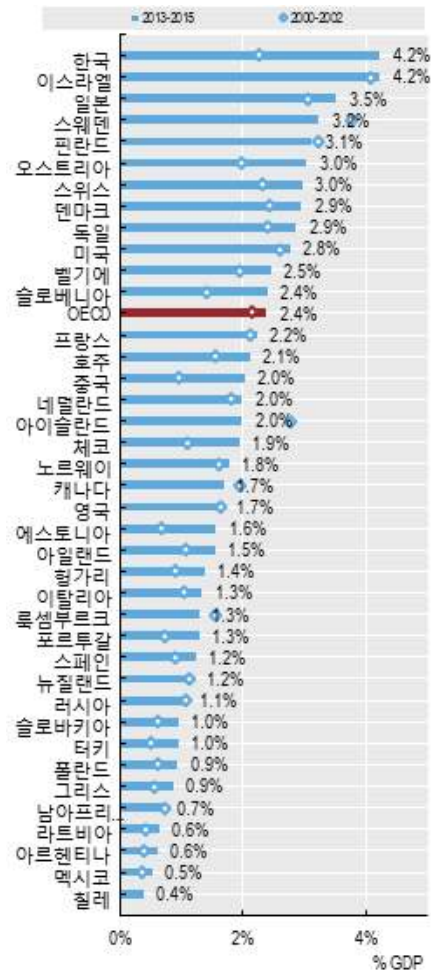
경제적 기회와 정책 대응

OECD 국가의 정부연구개발예산(GBAORD) 대비 R&D예산은 전체의 4%, 환경 R&D는 1.5% 수준이며, GDP 대비 2.4%의 R&D 투자가 이루어짐

- 정부의 연구개발예산(GBAORD: Government budget appropriations or outlay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대비 환경부문에 대한 R&D 투자가 가장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9.6%)
- 한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2000년 이후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가 4.2%로 가장 높음
- 각국의 지속적인 환경 R&D 투자로 인하여 CCM(Climate Change Mitigation, 기후변화 완화) 관련 혁신 기술 발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특허부문에서 에너지, 건축, 수송 부문에 대한 발전이 두드러짐



[환경 R&D, GBAORD 대비 %]



[전체 R&D,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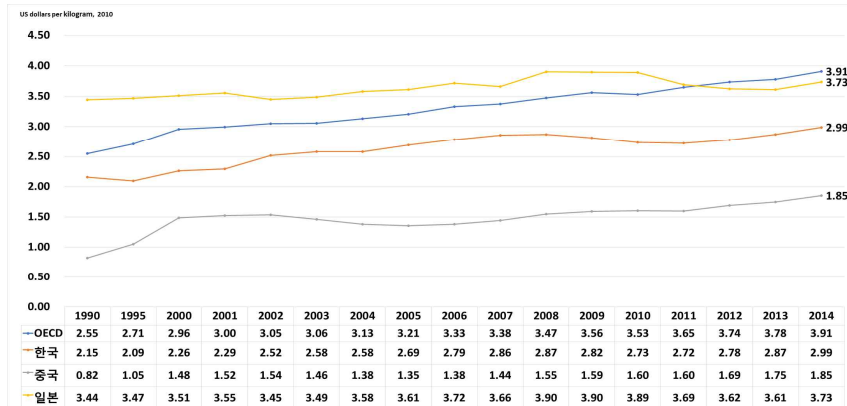
자료) OECD, 「Green Growth Indicator 2017」, 2017.6

[그림 6] GDP 대비 R&D비율 및 환경 관련 기술 발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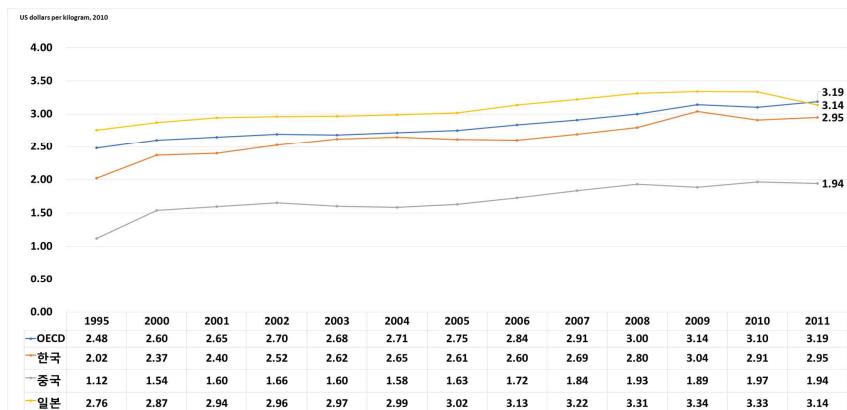
4. 한·중·일 녹색성장 주요지표 비교

CO₂ 생산성

- 생산기준 CO₂ 생산성*은 일본이 \$3.73으로 가장 높고 한국은 \$2.99, 중국이 \$1.85
*생산기준 CO₂ 생산성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배출된 CO₂를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활용 했는가를 의미
- 수요기준 CO₂ 생산성*은 일본이 \$3.14로 가장 높고 한국은 \$2.95, 중국이 \$1.94
*수출입을 포함하는 측면에서 국가 간 이동된 CO₂까지도 포함하는 생산성을 의미
- 일본의 경우 생산기준 CO₂는 2011년 이후부터 OECD 평균보다 낮아졌으며 수요기준 CO₂는 2014년부터 OECD 평균보다 낮아짐



[그림 7] 생산 기준 CO₂ 생산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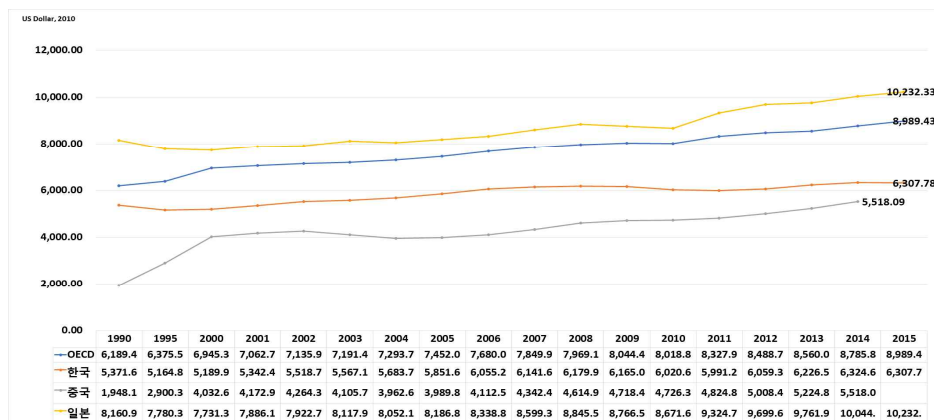


자료) OECD, 「Green Growth Indicator 2017」, 2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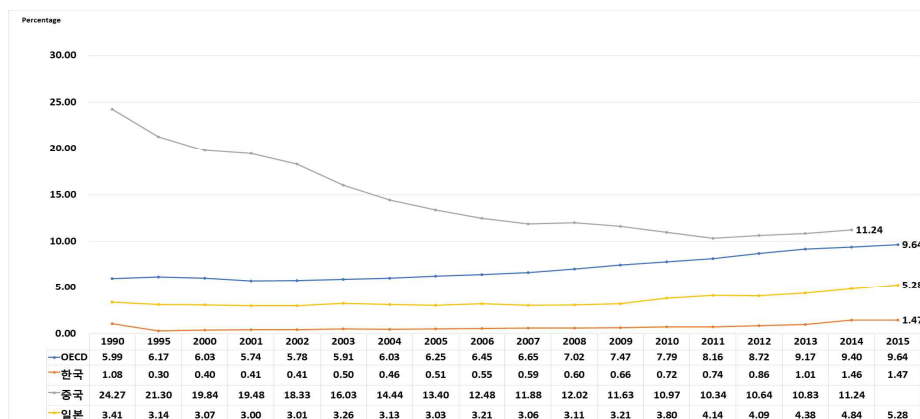
[그림 8] 수요 기준 CO₂ 생산성 추이

에너지 생산성

- 1차 에너지 공급(TPES: Total Primary Energy Supply) 단위 당 GDP의 비중은 일본이 \$10,232 로 OECD 평균 \$8,989 보다 13.8% 우세
 - 한국과 중국은 각각 \$6,227과 \$5,225
 -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에서는 중국이 2014년 기준 11.2%로 상대적 비중이 높은 수준
 - 다만, 중국의 경우 재생에너지(태양, 물, 바람 등)를 이용한 에너지의 발전비중이 높은 것이 아닌, 목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를 연료로 활용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OECD보다 높게 나타남
 - 일본과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은 5.35%와 1.5%의 재생에너지를 공급
- ※ 중국은 201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1990년 대비 13.03%p감소



[그림 9] 1차 에너지 공급(TPES) 대비 GDP



자료) OECD, 「Green Growth Indicator 2017」, 2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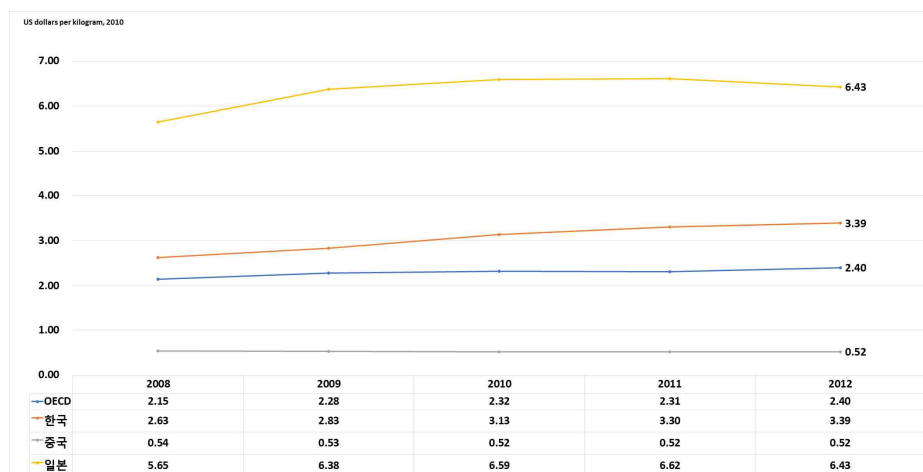
[그림 10]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

환경 및 기술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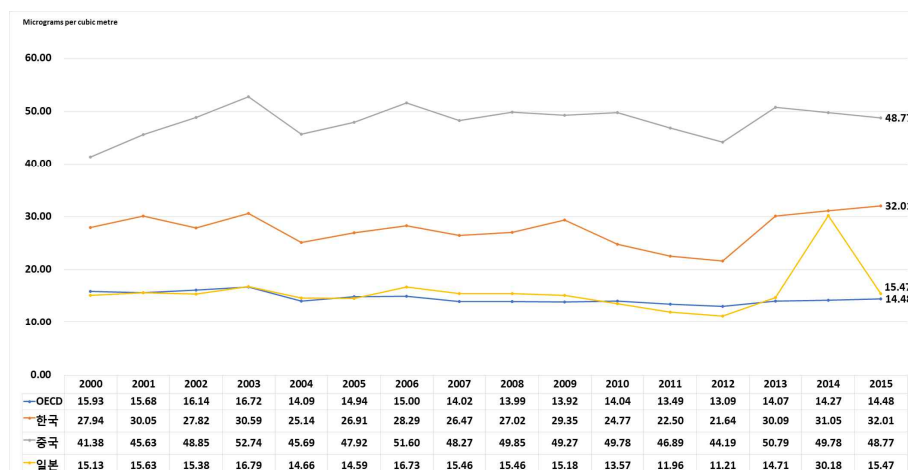
- 2012년 기준 OECD 평균 물질 생산성은 \$2.40이며, 한국(\$3.39)과 일본(\$6.43)은 OECD 평균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0.52로 낮은 수준

※ 물질 생산성은 국가단위에서 성장에 필요한 물리적 자원들에 대한 순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GDP를 국내물질소비량(DMC :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으로 나눠 측정

- 평균 미세먼지 노출정도 지표는 중국이 $48.8\mu\text{g}/\text{m}^3$ 로 나타나 대기오염 노출 정도가 가장 심각 - 한국($32.0\mu\text{g}/\text{m}^3$)과 일본($15.5\mu\text{g}/\text{m}^3$)도 OECD 노출기준 $10\mu\text{g}/\text{m}^3$ 을 초과한 '나쁨' 수준



[그림 11] 물질 생산성



자료) OECD, 「Green Growth Indicator 2017」, 2017.6

[그림 12] $\text{PM}_{2.5}\mu\text{g}/\text{m}^3$ 이하 미세먼지에 평균 노출 정도

4. 요약 및 정리

- **녹색성장지표 중 주요 10개 평가지표의 OECD 평균은 0.46이고, 한국은 전체 10위 수준**
 - 46개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0.59), 노르웨이(0.58), 룩셈부르크(0.57), 아일랜드(0.55) 등이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0.50으로 10위 수준
- **한중일 3개국 중에서 한국은 평균 0.50으로 주요 10개 평가지표에서 우세**
 - 일본은 0.44로 22위, 중국은 0.32로 45위를 차지하여 3개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OECD 평균 보다 우위
 - 한국은 환경 조정 다요소 생산성 지표와 토양자원 저소비, 환경 관련 과세, 낮은 소득 불평 등 지표에서 중국과 일본 보다 우세
- **CO₂ 생산성은 과거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향상**
 - OECD의 생산 기준 CO₂ 생산성 지표는 2014년 기준 평균 \$3.9로 지속적으로 증가
 - 한편, 중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BRIICS 등의 국가의 CO₂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
- **OECD 인구의 14.5%가 만성적으로 PM2.5($\mu\text{g}/\text{m}^3$) 미세먼지에 노출**
 - 한중일 3국은 모두 OECD 평균 노출기준 보다 높은 미세먼지에 노출
- **OECD 국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R&D예산은 전체의 4%, 환경 R&D는 1.5% 수준**
 -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환경부문에 대한 R&D 투자가 가장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9.6%)
 - 2000년 이후 한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가 가장 높은 수준
-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진전시키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노력은 있었으나, 사회적인 문제 및 환경적인 부하를 줄이는 것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
 -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여전히 소득불평등이 존재
 - 녹색성장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이 많지만 악화된 국가들도 존재
 - 환경부문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 한국은 기술적 측면에서 우수하나, CO₂와 자원생산성,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개선 필요



[OECD 녹색성장 주요 지표]

분야	특정테마	지 표
1. 환경과 자원의 생산성	1. 이산화탄소 에너지 생산성	1. CO ₂ 생산성
		2. 에너지 생산성
	2. 자원생산성	3. 자원 생산성 (non-energy)
		4. 물 생산성
	3. 다요소 생산성	5. 환경 조정 다요소 생산성
2. 자연자산 기반	4. 자연자본	6. 자연 자원
	5. 재생자본	7. 물 자원
		8. 산림자원
		9. 수산자원
	6. 비재생자본	10. 광물 자원
	7.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11. 대지자원
		12. 토양자원
		13. 야생자원
3. 환경적 측면의 삶의질	8. 환경적 건강과 위험	14. 건강, 비용과 관련 된 환경 문제
		15. 경제적 손실과 연결된 자연적·산업적 위험
	9. 환경적 서비스	16. 하수처리 및 식수접근
4. 경제적 기회와 정책적 대응	10. 기술혁신	17.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개발비
		18. 녹색성장을 위한 특허개발
		19. 환경관련 혁신
	11. 환경 상품 및 서비스	20. 환경상품 및 서비스 생산
	12. 국제 자원 흐름	21. 녹색성장에 중요한 국제 금융흐름
	13. 가격과 이전	22. 환경관련 세금 및 보조금
		23. 에너지 가격
		24. 물 가격 및 비용회수
	14. 규제와 관리	25. 향후 개발 필요 지표
	15. 교육과 기술발전	26. 향후 개발 필요 지표
The socio-economic context and characteristics of growth	경제성장, 생산성, 경쟁	경제성장과 구조
		생산성과 무역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노동시장, 교육과 소득	노동 시장
		사회 인구통계학적 패턴



[통계표: 주요 10개 평가지표]

	OECD 구분/지표	1인당 GDP	낮은 소득 불평등	CO ₂ 생산성 (생산기준)	CO ₂ 생산성 (수요기준)	물질 생산성 (생산기준)	환경조정 다요소생 산성의 성장	토양자원 저소비	대기오염 저노출	환경 기술 혁신	환경관련 과세	평균
1	호주	0.50	0.72	0.25	0.35	0.16	0.56	0.05	0.56	0.48	0.58	0.42
2	오스트리아	0.49	0.80	0.53	0.59	0.32	0.46	0.07	0.19	0.56	0.50	0.45
3	벨기에	0.45	0.94	0.45	0.52	0.49	0.39	0.06	0.20	0.42	0.34	0.42
4	캐나다	0.47	0.73	0.24	0.39	0.08	0.42	0.08	0.38	0.50	0.28	0.36
5	스위스	0.60	0.77	1.00	0.68	0.73	0.29	0.09	0.23	0.38	0.49	0.53
6	칠레	0.24	0.49	0.43	0.65	0.06	0.48	0.22	0.17	0.86	0.46	0.40
7	스페인	0.36	0.67	0.55	0.75	0.63	0.31	0.13	0.24	0.67	0.42	0.47
8	에스토니아	0.29	0.67	0.17	0.36	0.21	1.00	0.17	0.42	0.73	0.59	0.46
9	핀란드	0.42	0.92	0.40	0.52	0.18	0.53	0.16	0.48	0.54	0.49	0.46
10	프랑스	0.43	0.85	0.74	0.76	0.51	0.43	0.07	0.23	0.58	0.33	0.49
11	영국	0.44	0.70	0.53	0.65	0.89	0.56	0.11	0.27	0.54	0.54	0.52
12	그리스	0.26	0.68	0.35	0.47	0.56	0.10	0.13	0.16	0.54	0.58	0.38
13	이스라엘	0.35	0.63	0.35	0.45	0.46	0.53	0.19	0.13	0.38	0.72	0.42
14	이탈리아	0.36	0.70	0.54	0.66	0.67	0.21	0.10	0.15	0.46	0.66	0.45
15	일본	0.40	0.74	0.33	0.50	0.88	0.35	0.12	0.19	0.50	0.38	0.44
16	한국	0.39	0.77	0.26	0.47	0.47	0.89	0.37	0.09	0.48	0.77	0.50
17	룩셈부르크	1.00	0.81	0.46	0.85	0.76	0.46	0.06	0.24	0.67	0.39	0.57
18	라트비아	0.24	0.64	0.56	0.61	0.15	0.61	0.25	0.29	0.51	-	0.43
19	뉴질랜드	0.38	0.64	0.42	0.59	0.16	0.31	0.08	0.58	0.49	0.31	0.40
20	폴란드	0.27	0.73	0.28	0.46	0.22	0.81	0.12	0.12	0.62	0.45	0.41
21	포르투갈	0.30	0.69	0.55	0.81	0.25	0.27	0.07	0.27	0.47	0.48	0.42
22	슬로바키아	0.31	0.89	0.43	0.57	0.39	0.73	0.07	0.13	0.57	0.42	0.45
23	슬로베니아	0.32	0.86	0.39	0.49	0.44	0.61	0.08	0.17	0.42	0.79	0.46
24	스웨덴	0.50	0.90	0.98	0.84	0.29	0.44	0.12	0.42	0.48	0.39	0.54
25	체코	0.33	0.94	0.27	0.45	0.43	0.52	0.08	0.14	0.48	0.59	0.42
26	독일	0.49	0.78	0.42	0.65	0.52	0.30	0.08	0.20	0.60	0.40	0.44
27	덴마크	0.49	0.92	0.61	0.76	0.35	0.33	0.07	0.27	1.00	0.61	0.54
28	헝가리	0.27	0.78	0.50	0.67	0.47	0.47	0.08	0.13	0.35	0.51	0.42
29	아일랜드	0.67	0.79	0.56	0.74	0.34	0.96	0.11	0.44	0.33	0.57	0.55
30	아이슬란드	0.48	0.98	0.58	0.90	0.33	0.78	0.22	1.00	0.24	0.39	0.59
31	멕시코	0.19	0.50	0.40	0.63	0.26	0.55	0.23	0.22	0.49	-0.13	0.33
32	네덜란드	0.51	0.91	0.45	0.77	1.00	0.42	0.07	0.19	0.44	0.70	0.55
33	노르웨이	0.72	1.00	0.76	0.79	0.43	0.48	0.07	0.67	0.49	0.41	0.58
34	터키	0.21	0.63	0.40	0.58	0.24	0.12	0.26	0.13	0.28	1.00	0.39
35	미국	0.58	0.62	0.27	0.42	0.32	0.53	0.05	0.27	0.52	0.21	0.38
36	콜롬비아	0.14	0.47	0.72	0.96	0.00	0.42	0.47	0.35	0.48	0.37	0.44
37	코스타리카	0.16	0.50	0.82	0.91	0.00	0.48	0.20	0.39	0.02	0.73	0.42
38	리투아니아	0.27	0.66	0.63	0.57	0.00	0.93	0.22	0.22	0.60	-	0.45
39	아르헨티나	0.21	0.59	0.36	0.71	0.00	0.54	0.21	0.26	0.48	0.30	0.37
40	브라질	0.16	0.50	0.57	1.00	0.12	0.41	0.24	0.26	0.47	0.15	0.39
41	중국	0.14	0.46	0.16	0.31	0.07	0.78	0.34	0.06	0.34	0.53	0.32
42	인도네시아	0.12	0.54	0.51	0.80	0.27	0.69	0.30	0.16	0.48	0.00	0.39
43	인도	0.07	0.48	0.30	0.54	0.16	0.65	1.00	0.05	0.45	1.00	0.47
44	러시아	0.25	0.70	0.21	0.47	0.28	0.64	0.15	0.19	0.49	-	0.38
45	사우디아라비아	0.55	-	0.26	0.56	0.00	0.57	0.27	0.05	0.90	-	0.39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호수 : 2017년 제28호

발간물 명 : OECD 녹색성장지표 2017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히 둡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자 혹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6775 서울시 서초구 미방길 68(양재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 혁신정보분석센터

Tel. 02 589 5243 Fax. 02 589 2244